

3. 南部地方 가뭄의 現況과 影響

- (現況)
 - 낙동강, 남강, 영산강의 하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포항 등 영호남 거의 전 지역에 가뭄으로 인해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으며 중부 지역으로 북상중
- (影響)
 - 산업용수, 식수 및 농업용수의 절대부족에 따라 호우기인 올 6월까지 남부 지역의 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됨
 - 수계의 자정능력 약화로 수질이 악화되어 식수 및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임
- (對策)
 - 政府: 강력한 절수대책과 함께 한번 쓴 물을 간이 정화하여 재사용하는 中水道 制度의 조기 실시
 - 企業: 재활용수 설비 설치 시급, 海水 淡水化 設備의 도입 검토

- 現況
 - 서울 중부 지역과 낙동강, 남강, 영산강 하류지역을 제외한 경남북 전남북 지역은 댐의 평균 저수율이 93년의 36.7~57.2%에 비해 현격히 낮은 1.5~25.2%이며, 이들 지역의 저수지들도 저수율이 예년의 절반 상태임
 - 현재 제한급수를 받고 있는 영호남 지역은 12개 시·군이고, 중부지역인 충북의 4개 시·군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 포항지역의 공장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용수 공급량을 줄였으며, 식수는 지난해 9월부터 제한급수가 실시되어 왔고 1월말부터는 격일제로 전환되고 있음
 - 울산지역은 94년에 용수 공급 시설을 2배로 확대했기 때문에 가뭄난은 없는 상태임

< 주요댐의 저수 현황 >

댐	총저수량 (백만 t)	저수량 (백만t)	저수율 (%)	예년 저수율(%)	댐	총저수량 (백만 t)	저수량 (백만t)	저수율 (%)	예년 저수율(%)
소양강댐	2,900	1,307	45.1	52.9	안동댐	1,248	298	23.9	49.9
대청댐	1,490	565	37.9	53.6	합천댐	790	198	25.1	38.0
충주댐	2,750	1,446	52.6	55.0	임하댐	595	150	25.2	47.4
섬진강댐	466	27	5.8	36.7	영천댐	81,400	1,237	1.5	57.2

註: 95년 1월 23일 현재

- 原因 : 강우량의 절대적 부족과 근본적 대책 미흡

- 94년 전국의 평균 강우량은 82년 이래 최저로, 예년 평균 1,305mm의 67%에 불과한 875mm 였음. 영·호남지역은 평년의 50~60% 수준에 그쳤음
- 식수 및 공업용수의 증가 및 가뭄에 대비한 댐 및 저수지 등 용수 공급 시설에 대한 정비 및 투자가 소홀히 취급되어 왔음
 - 관리주체가 용수는 건설교통부, 수질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체계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함
 - 저수지 시설도 관리 및 투자 소홀로 인해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함

○ 影響

- 호우기인 6월 이전까지 200mm이상 비가 오지 않는다면 댐의 고갈, 공업용수 및 식수 부족이 심화될 것임
 - 포철 등 영호남 주요 공장의 공업용수 공급량은 더욱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임
 - 용수를 대량 소비하는 염색, 가죽, 제지, 의류 등 중소기업 관련 업종의 지하수 개발이 지체되어 생산 중단도 예상되고 있음
- 댐의 방류량이 줄어 하천의 자정 능력이 떨어짐에 따른 수질의 악화로 산업용수 및 식수의 수질이 위협 수위에 도달하고 있음. 이미 「삼성전관」의 경우 수질악화가 제품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임
- 농업용수 부족으로 모내기에도 차질 예상
- 그러나 반대로 생수 및 지하수 개발, 수리설비 사업은 활기를 띠 것임

○ 對策

- 政府

- 「5段階 節水對策」 ▲1단계: 10% 감량공급 필요시 절수홍보 강화, 상수도 수질관리 ▲2단계: 30% 감량공급 필요시 시간제 제한급수, 수영장 세차장 등 영업시간 단축 ▲3단계: 50% 감량공급 필요시 격일제 급수, 수영장 세차장 등 임시휴업 ▲4단계: 50% 이상 감량공급 필요시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수도물 사용 공장조업 중단 ▲5단계: 취수원 고갈시 인근 시·도에서 운반급수
- 건설교통부는 7월부터 전국에 걸쳐 中水道 制度(한번 쓰고 버린 물을 간이 정화하여 재사용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고,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에 절수형 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할 것임

- 企業

- 남부 지역의 기업은 지하수 개발, 용수의 재활용 시설 투자가 시급한 상태임
- 용수를 대량 소비하는 대규모 공장들의 경우 지하수 개발의 한계, 공업용수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볼때, 경제성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만 도입하고 있는 海水 淡水化 設備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할 시점으로 판단됨

(신 광 철)